

지역 소식통

제288회 정읍시의회
입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9일 제288회 입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 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등 16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이복형 의원과 황해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복형 의원과 이민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가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 · 점검

정읍시는 19일 전북 수산물산 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 의약품 등 사용 지도 ·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도 · 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 의약품의 오 · 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 · 용량 · 휴약기간 · 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점검 양식업인에게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현장 지도도 연계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간정원 최다 '정원문화 선도'

정읍시, 황토현대원 · 오브제정원 신규 지정... 전북 3곳 중 2곳

전북도가 최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힐링 공간 제공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등록된 민간정원 3곳 중 2곳이 정읍에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전북도가 신규 등록된 민간정원은 정읍 황토현대원 · 오브제정원 순차 초연당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인근에 위치한 '황토현대원'은 소나무와 편백, 차나무 등의 조화가 우수해 경관가치가 높다. 또 녹차밭을 이용해 정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녹차만들기, 차문화 교육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북 제1호 지방정원인 구절초 지방



정원 인근의 '오브제정원'은 폐교에 자생식물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광범한 것들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자연적인 정원으로 조성했다.

로 조성했다. 민간정원은 민간이 만들고 가꾼 정원으로 빼어난 경관미와 특징을 갖춘 경우 그 가치를 인정해 도지사가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가 지정한 민간정원은 모두 9곳 중 3곳(들꽃마당, 황토현대원, 오브제정원)이 정읍에 있다. 시는 도내 최다 민간정원과 구절초지방정원 등을 통해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시는 지역 소재 민간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적 특성과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환경부에서 신규 지정한 7곳 중 한곳으로 운곡삼사르습지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생태탐방 선도할 것"

고창운곡삼사르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환경부에서 신규 지정한 7곳 중 한곳으로 운곡삼사르습지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우수한 생태와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도보중심의 길을 말한다.

고창군은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 총예산액 30억원을 투입해 3개년 사업으로 운곡 탐사르습지 일원에 길이 3.5km에 이르는 도보전용 국가생태문

화탐방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운곡습지는 산지형 저층습지로 진입로에는 도보와 전기탐방열차가 혼합 운영중이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 도보탐방객의 안전과 방문객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신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의 탐방로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수려한 환경으로 대한민국 생태탐방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중국 크루즈 선사, 부안군 방문 기항여건 점검

부안 격포항 · 공항 크루즈 기항지 유치 가시화

부안군 격포항 · 공항 앞바다에 크루즈가 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연태, 청도, 천진에 소재를 둔 중국 크루즈 관계자들이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부안 변산 및 전주 한옥마을 등을 찾아 크루즈 기항 관광지를 살펴본 후 격포항에 텐더보트를 이용한 기항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사찰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8월 28~29일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회담에 참석해 부안 격포항·공항 중심 한국형 칸톤-Carni 비전과 중국 서해안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통한 상생 전략을 제안하는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기조연설은 중국 크루즈 선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부안군의 크루즈 산

업과 기항지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이 부안을 방문했다.

우선 오는 20일은 부안군청에서 부안군과 중국 보하이 페리그룹 간의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부안군의 기항 관광지인 변산면 일원을 둘러본 후 향후 격포항에 완공 예정인 크루즈 지원센터 예정 부지 및 크루즈 모박지를 비롯한 텐더보트를 통한 기항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21일은 전북도의회에서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 및 크루즈 인프라 조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포럼(동북아 체인 크루징 미팅)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중국 선사 관계자들을 비롯한 김정기 · 김승지 전북도의원,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장, 방선동 전북도민일보 기자, 최연근 부안군 경제산업국장 등 14명이 참석해 동북아 크루즈 산업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했던 부안군 크루즈 기항지 유치 노력은 코로나19로 주춤했으나 2022년 10월 부안군 크루즈 기항지 포트세일즈를 제작하고 2023년 2월 부안군 크루즈 육성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번 중국 크루즈 관계자들의 부안 방문은 부안군에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제 동북아 크루즈 산업은 'Think outside the Box' 생각의 틀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보류

고창군이 19일 한빛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의견에 대한 한수원보완 답변의 전문가 검토를 위해 주민공람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난 17일 보완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완의견서는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적용,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 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등 7건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을 전달(18일) 받았으나, 한수원의 답변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 여부 검토를 위해 주민공람은 보류 결정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된다.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요령'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에서는 답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추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완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50회 고창 모양성제, 거리퍼레이드로 축제 분위기

'제50회 고창 모양성제'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거리퍼레이드가 열리며 도시전체가 축제분위기로 달아올랐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유중·터미널로터리-군청광장-고창읍성 구간'에서 제50회 모양성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가 열렸다.

취타대를 선두로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이 한복 복장으로 앞장섰다. 이어 조선가리악단, 각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은 글로벌 고창사람들이 행진했다. 읍·면 주민들이 수박과 땅콩, 고구마, 아기단풍 등 마을의 특산품을 활용한 행진도 돋보였다.

특히 올해 거리퍼레이드의 백미는 행진 도중 퍼레이드 참가자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한미방이었다. 선

두부터 후미까지 1000여명의 군민들이 일제히 쪽 뺨은 고창군 중앙로 도로에서 펼쳐는 울동은 탄성을 지어냈다.

또한 특설무대에서 있었던 입장식에서는 읍면 주민들이 직접 무대를 연출하여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새로운 모습의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 앞으로 5일간 펼쳐질 제50회 고창 모양성제의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며 "고창 모양성제가 지역 대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양성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0주년을 맞은 고창 모양성제는 '함께 걸어온 50년 미래로 열어갈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5일간 열린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